

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진행중인 사항으로 결과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문화일보, 9.14) >

◆ 파업 코레일에... 전면개혁 칼 빼든다

- 정부가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의 철도 유지·보수 부분 분리 추진
- 10월에 발표되는 ‘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’ 용역보고서에는 철도시설 유지·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겨져

□ 정부가 ‘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’를 10월에 발표하고 코레일이 수행 중인 시설유지보수 부문 분리를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 차례 여객열차 탈선, 네 명의 작업자 사망사고 등 이례적으로 발생한 철도사고*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점검하는 컨설팅 용역(‘23.3~ , Boston Consulting Group)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* (’22년 탈선사고) 무궁화호 탈선(11.6), SRT탈선 (7.1), KTX 차륜 파손 탈선(1.5)
(’22년 작업자 사망사고) 오봉역(11.5), 정발산역(9.30), 중랑역(7.13), 대전조차장역(3.14)

- 컨설팅 용역을 통해 철도사고 예방 및 복구 등 사고대응체계, 안전업무 관리감독 체계 등 국내 철도안전 전반을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심층진단 하고 있으며, 관제, 유지보수는 그 일부입니다.

□ 한편, 컨설팅 용역은 안전기능 진단 대상 기관인 코레일, 철도공단이 폭염, 태풍 등 재난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시중지 중(’23.8~)에 있으며, 재해취약기간 이후 10월 중 재착수할 계획입니다.

담당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강문 (044-201-4602)